

# 류현진 KKK...이게 얼마 만이냐

## 첫 라이브피칭 합격점

1이닝 4타자 상대 23구 투구  
포수 그란달 "원하는 곳 제구"  
5선발 경쟁, 현지에서도 호평

'코리안 몬스터'로 돌아올 수 있을까. LA 다저스 류현진(30)이 올해 첫 라이브 피칭을 무사히 마치며 본격적인 선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이 순조롭게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재기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다저스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위치한 कै말백랜치에서 라이브 피칭에 돌입했다. 그동안 불펜피칭만 해오던 류현진은 처음으로 라이브 피칭을 한 류현진은 1이닝 동안 4타자를 상대하며 1안타 3탈삼진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23개였다.

라이브 피칭은 투수가 마운드에서 서서 타자를 타석에 세워두고 상대하는 훈련을 일컫는다. 불펜피칭 다음 단계로, 약 80%의 힘으로 다양한 공을 실험한다. 실전 감각을 빠르게 찾아가기 위한 훈련법이다. 타자 입장에서는 마운드에 선 투수의 공을 상대하기 때문에 '라이브 배팅'이라 부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이날 류현진이 5선발 경쟁 중인 스캇 카즈미어와 함께 다저스 투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라이브 배팅에 돌입한 사실을 전하면서 류현진의 인터뷰를 실었다.

류현진은 인터뷰에서 "난 지난 2년간 1경기만 던졌다. 그래서 나에게 의무부호가 붙어 있는 게 사실이다.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현실을 인정한 뒤 "지난해에는 내 자신에 대해 나조차도 의심을 했지만 오프시즌 동안 나의 능력과 몸 컨디션에 대해 자신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류현진의 라이브 피칭을 받아준 포수 야스마니 그란달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고 다양한 공을 던지는 것이 나아졌다"면서 "공을 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호평했다.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마에다 켄타까지 3선발을 확정했다. 4선발은 홀리오 유리아스가 유력한 상황. 류현진은 카즈미어, 브랜든 매카시 등 7~8명과 치열한 5선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갈길이 멀지만 팀내에서 가장 먼저 라이브 피칭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좋은 핑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류현진은 앞으로 5일 간격으로 라이브 피칭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LA 다저스 류현진이 재기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다저스 스프링캠프지 애리조나 글렌데일 कै말백랜치에서 라이브 피칭을 시작했다. 글렌데일(애리조나 주) | AP뉴시스

## '권토중래' 이흥구

작년 106G 출장불구 큰경기서 제외  
"내가 부족"...한승택과 안방마님 경쟁



KIA 포수 이흥구(27)는 지난해 팀의 안방마님 중 가장 많은 106경기(포수 출장 92경기)에 나섰다. 안방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엔트리에서 빠지는 아픔을 맛봤다.

2017년, 그는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노린다. 아픔을 맛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20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이흥구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내가 부족했던 것이었다. 올해 스프링캠프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흥구는 올해 후배 한승택(23)과 함께 안방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주전포수 자리를 두고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한승택은 지난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흥구 대신 엔트리에 합류해 1·2차전 모두 선발출장하며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다.

이흥구로서는 강한 자극제가 될 법하다. 그는 "작년엔 내가 못했던 것이다. 한 시즌을 완주해도 막판에 타격감도 떨어졌고, 수비에서도 (한)승택이가 훨씬 안정적이었다. 잘하는 선수가 가는 게 당연하다. 승택이가 잘했다.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부족했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단국대를 졸업하고 2013년 2라운드 전체 14순위로 KIA에 입단한 그는 어느덧 5년차 시즌을 맞는다. 캠프 경험도 늘면서 여유도 생겼다. 이흥구는 "오키나와도 이제 익숙하다. 캠프를 거듭하면서 조금 여유도 생긴 게 사실이다. 올해는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 같다"며 웃었다.

의연한 이흥구는 이번 캠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겨우내 몸을 잘 만들어 보자 '슬럼프' 해진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연습경기 4경기 중 2경기 선발출장, 1경기 교체출장에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펀치력도 갖춘 이흥구가 8번 타수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최형우의 가세로 막강해진 KIA 타선의 약점은 최소화된다.

이흥구는 20일 열린 요코하마와 5번째 연습경기에 8번 포수로 선발출장해 2타수 무안타 1삼진 1사 2루서 요코하마의 좌완 선발기대주이시타 겐타를 상대로 12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과는 삼진이었지만, 끈질긴 파울 커트에서 달라진 이흥구의 정확성과 집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KIA는 이날 3-9로 역전패하며 연습경기 5연패에 빠졌다. 5~7번 타수에 포진한 이범호와 김주형, 안치홍이 나란히 2안타씩을 기록했다.

오키나와(일본) | 이명호 기자 nirvana@donga.com

## '블루도깨비'가 떴다

고척돔서 WBC 응원 서포터스 출정식

"축구에 '붉은악마'가 있다면, 야구에 '블루도깨비'가 있다!"

2006년 월드컵을 이끌었던 WBC에서 야구대표팀을 응원하며 탄생했던 서포터스 '블루도깨비'가 2017 WBC 1라운드(서울라운드)를 앞두고 다시 뭉쳤다.

블루도깨비는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WBC 대표팀 응원을 위한 본격적인 댄스 올렸다. 사회인야구 선수들과 연인야구팀인 '알바트로스'의 멤버들, 그리고 일반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정식에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응원복 발표와 함께 블루도깨비 명예응원단 위촉식 등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특별 이벤트가 펼쳐졌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로 출정식 직후 사회인



2017년 WBC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블루도깨비' 출정식이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야구팬을 비롯해 사회인야구선수, 연인야구단을 망라해 응원단을 구성했다. 고척 | 김민성 기자

야구팀과 알바트로스의 친선경기도 열렸다. 팬들은 무료로 받은 블루도깨비 공식 응원복을 입고 관중석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블루도깨비 명예응원단장인 펠릭스 이근희는 이날 출정식에서 "WBC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1차 목표인 1라운드를 통과해야 하지 않겠나. 블루도깨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구의 붉은악마

다"고 전한 뒤 "2006년 WBC 4강, 2009년 WBC 준우승,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야구부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번 WBC에 블루도깨비가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알바트로스도 WBC 기간에 고척돔에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블루도깨비 창시자인 (사)한국사회인야구연맹 정동우 사무국장은 "블루도깨비는 2006년 WBC 때 사회인야구를 하는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시작했는데, 한국이 4강까지 가면서 잠실야구장 응원과 길거리 응원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야구는 축구처럼 A매치가 꾸준히 있는 게 아니어서 조직력은 아직 붉은악마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WBC가 개최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응원전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블루도깨비는 한국이 2라운드에 진출하면 일본 원정응원단 파견과 함께 팬들이 고척돔에서 전광판으로 경기를 보며 응원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척 | 이재국 기자

## 외국인 농사, 코디네이터하기 나름이에요

영상자료·성적 등 보이는 기록뿐 아니라  
외인 스카우트·계약 등 중간자 역할도



롯데 사도스키

삼성이 2017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실패한 외국인농사를 교훈 삼아 외인 영입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지난해 11월 총액 105만 달러에 앤서니 레나도를 영입했고, 외국인타자로서 다린 러프를 데려오는데 110만 달러를 투자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삼성은 교체한 2명을 포함해 외인 5명에게 쓴 금액이 310만 달러에 불

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메이저리그 베네딕트 스카우트였던 마크 위드마이어를 코디네이터로 영입하면서 외국인선수 영입에 신중을 기했다. 롯데도 2015년 선수생활을 했던 라이언 사도스키를 해외 스카우트 코치로 임명해 외인들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겼다. 실제 사도스키 리포팅으로 뽑은 외인이 짐 아두치나 조쉬 린드블럼 등이었다. LG도 비록 선수로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적 한나한을 현지 코디네이터로 섭외해 외인 계약을 주도하게 했다. 올해가 밝기 전 루이스 히메네스, 헨리 소사, 데이비드 허프 3명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간자 역할을 한 그의 공이 컸다. NC는 2016시즌 시범경기부터 한국과 미국,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패트릭 베고를 외국인선수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디네이터로 임명했다.

그동안 외인 스카우트는 영상자료나 성적 등 보이는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었다. 이는 한계가 있었다. 예전과 달리 외국인선수의 성패는 KBO리그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실력이 기본이지만 소속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성도 중요해졌다. 그러나 해당 선수의 성품이나 사생활을 파악하는 건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소식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구단은 외인 전담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재현 기자